

## 『게자씨』(1933-1934)를 통해 본 일제강점기 기독교윤리 담론\*

이장형 (백석대학교 교수)

### I. 들어가는 말

### II. 선행 연구 및 『게자씨』(1933-34)에 나타난 윤리적 성향

### III. 시대적 상황성: 일본의 종교정책

### IV. 유일신 사상과 신앙의 정절(貞節) 고취

1. 주기철의 “一死를 覺悟하라”
2. 정암의 “三大偶像”
3. 김진홍의 “背敎時代に 信者의 거를 길”(번역작)
4. “히스기야가 번역한 帛성을 인도함”
5. “殉敎者巡禮記” 연재

### 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8.40.06>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2A-01010865)

---

• ABSTRACT •

---

Christian Ethical Discourse through the Lens of *The Mustard, Gejasi*  
(1933-1934)

Prof. Lee, Janghyung (Baekseok University)

This essay investigates the discourse of Korean Christian ethical thought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The Mustard, Gejasi』 during the year of 1933 and 1934 and attempts to expand the ideological horizon of Korean Christian ethics by reflecting on a possibility of a new interpretation. What was the ethical thematic consciousness that was most important in Korean churches and Christian communiti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 authors in 『The Mustard, Gejasi』 asked questions on how to confirm the monotheism of Christianity and the Christian faith, and emphasized the spirit of martyrdom, prior to the issue of good and evil and of action and agent which are taken for granted in the viewpoint of contemporary Christian ethical thoughts. It is evaluated that the publication of the journal that may be regarded as a sort of discussions of collective intelligence cooperated by groups of theological students, college students, and pastors introduces the teachings from the Bible and the western theological literatures to uphold Christian faith and defeat various idolatry under circumstances that idolatry was forced and the human rights were violated, and develops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s and the church communities persuasively. In particular, the typography and dissemination of the mission of the times itself under difficult environments for publication could be regarded as a meaningful cultural and ethical practice of the formation of discourse.

**Key words:** The Mustard, Gejasi, Bang Ji-Il, Kim Jin-Hong, Japanese Colonial Period, Calling, Declaration of War, Mission

---

## I.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게자씨』1933년 - 1934년 발행 분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 기독교 윤리사상의 담론을 추적해 보며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모색하여 한국 기독교윤리학의 사상적 지평을 넓히고자 시도되었다. 『게자씨』는 현대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글들의 집합체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기독교 신학이 학문으로 온전히 자리매김 되기 전에 이루어진 출판물이란 점을 감안하면 다른 관점에서 책들을 접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연구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기독교 잡지를 통해 기독교 신학사상의 담론, 특히 기독교윤리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담론들을 추출해 낼 수 있다. 물론 체계성도 부족하고 한국적 신학사상이라기 보다는 성서적, 서양 기독교의 유입 소개와 유입에 그친 차원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일차적인 담론들이 한국 신학의 바탕이 되었다는 면에서 그 담론들을 정확히 살펴보고 재음미하는 것은 충분한 가치가 있다. 둘째, 『게자씨』는 신앙 교양잡지이자 최초의 신앙동인지(홍치모, “축사”, 방지일목사기념사업회 편, 『게자씨 영인본(1931-36)』(서울: 홍성사, 2010), 5.)라는 점에서 각별한 위치를 점하며, 이를 재정위 시키는 의미가 있다.<sup>1)</sup> 아울러 『게자씨』는 1931년부터 1932년까지 철필 등사판으로 발행해야 했을 정도로 재정적 난관과 인적 어려움, 총독부 검열 등 난산 끝에 인고(忍苦)의 빛을 본 문헌이었기에 충분히 연구할 만한 역사적, 신학적 가치가 있다.

1) 실제로 한국연구재단의 후원으로 최재목 교수 연구팀에서 진행한 일제강점기 잡지 관련 연구 및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에서도 『게자씨』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며, 그동안 이 잡지가 소개된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

한국사회의 근대화가 시작된 일제 강점기의 한국철학사상과 수용 과정에 대한 연구는 일정 부분 전개되었지만, 기독교 사상 및 윤리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도 질적, 양적인 면에서 척박하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윤리학의 담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로써 잡지『게자씨』를 통한 기독교 윤리 수용과정과 이해 양상을 살펴보는 작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 II. 선행 연구 및 『게자씨』(1933-34)에 나타난 윤리적 성향

일제 강점기 기독교인들의 윤리인식 및 주요한 가르침들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 주제와 관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본 연구는 '기독교윤리 문헌'들을 찾아보는 역사적인 방법을 채택하였고, 잡지인 『게자씨』를 들여다 보았다. 잡지는 한 개인이 아닌 공동의 논의라는 특성이 있다. 단편적인 글들을 보면 전통적인 교리 요약이나 성경 구절을 반복하는 차원의 가르침도 많이 있지만, 개인윤리적 영역과 사회윤리적 영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주제를 다룬 부분도 있다. 특히 기독교와 교회가 여러 면에서 위협받고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윤리나 사회윤리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통합적인 조망을 통해 시대적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도 볼 수 있다는 잠정적 확신을 선행 연구인 1931-1932년도 분 분석을 통해 갖게 되었다.<sup>2)</sup> 이 논문에서는 기독교가 성경과 교리라는 텍스트에 함몰되어 민족의 당면한 문제에 답하지 못해 발생한 위기 상황 속에서 윤리적 책임을 어떻게 고민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아울러 『게자씨』라는 잡지를 통해 한국의 근대 사회의 서양사상의 수용사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윤리의 수용과 이해 양상을 엿볼 수 있다. 기독교윤리학의 주제는 그 특성상 철학적 성격과 종교적 성격이 혼재된 자료가 많을 수밖에

2) 이 연구는 이장형, 안수강 공동연구로 “『게자씨』(1931-32)를 통해서 본 방지일의 선교 소명”(『장신논단』 47권, 2015. 6. )으로 발표 되었다.

에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기독교윤리학의 수용과 이해 양상을 일제강점기를 살아낸 목회자, 신학생, 신학사상가들의 글을 통해 살펴 보았다. 근대 한국사회 전반에서 기독교의 경향이 어떠했는가를 일제 강점기를 살아 낸 초기 기독교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신념 체계적인 윤리를 공동의 산물인 잡지 게재 글들을 통해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월/권/호	주요목차/저자
1933년 12월 제2권 제12호	일사를 각오하라 / 주기철, 신앙의 소유자 시므온 / 방지일, 그리스도오심은 / 광 송, 주여 생명을 주시옵소서 / 이유택 빌립보인서연구 / 박윤선, 유다서공부 / 광 송
1934년 1월 제3권 제1호	내가되어야 하겠다 / 주기철, 내 생활의 범위 / 이유택 신자의 내적생활 / 윤응팔, 신앙생활의 사기 / 홍봉의 신앙의 소유자 아이로 / 방지일
1934년 2월 제3권 제2호	삼대우상 / 정 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신앙 / 광 송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 이유택, 신앙의 소유자 룻 / 방지일 기독교화는 어떻게? / 김성태, 배교시대에 신자의 걸을 길 / 김진홍
1934년 3월 제3권 제3호	순복음의 신앙 / 이유택, 신앙의 소유자 혈루병여인 / 방지일
1934년 4월호 제3권 제4호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활동의 시기 / 방지일 신앙의 위험성 / 이유택, 도의 절제 / 방 열 시편연구 / 박윤선, 순교자순례기 / 김진홍
1934년 5월호 제3권 제5호	한 생명의 가치 / 정 계, 신앙의 위험성 / 이유택 전도자 / 마두원, 기독교 영화 운동은 개인 전도로 / 백응수 육대진리 / 증거인, 기도의 인 조지몰러 / 천광학인 시편연구 / 박윤선
1934년 6월호 제3권 제6호	승우승 / 박윤선, 불을 던지러 왔노니 / 이유택 예수를 따르는 생활 / 정 암, 기독교영화 운동은 개인전도로 / 백응수 예수의 사진 / 채필근, 처음신앙과 아벨 / 방지일
1934년 7월호 제3권 제7호	신앙학생 / 박윤선, 신앙 / 일지우 사랑이 제일 / 이유택, 확실한 구원은! / 방지일 혁명적 종교가 사보나로라 / 천광실인, 노상전도인 / 김진홍
1934년 8-9월호 제3권 8호	심판을 받겠습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 마두원, 사랑이 제일 / 이유택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 김진홍, 참으로 한숨 뿐이로다 / 김예진 한사람의 힘 / 방지일, 기도 / 이유택

연월/권/호	주요목차/저자
1934년 10월호 제3권 제10호	당신은 어디서 영원히 사시겠습니까? / 마두원, 신앙의 큰 뿌리 / 채필근 행실은 각인의 심상을 보이는 거울 / 김진홍, 나는 안다(사랑하는 벗에게) / 방지일, 열매맺는 가치 / 이유택, 기도 / 은 호, 사랑할 것과 미워할 것 / 박윤선
1934년 11월호 제3권 제11호	안지실 십자가 질 십자가 / 방지일, 주를 다른 태도 / 정 계 모래 위에 지어진 무릎자취 / AW빨레이, 심령의 기갈 / 원 호 아모스 연구 / 이유택,
1934년 12월호 제3권 제12호	복음의 집사 / 채필근, 아기예수를 증거한 안나 / 방지일

『게자씨』는 1931년 평양 숭실전문학교 기숙사에서 등사판으로 발간되었고, 이 등사판이 모체가 되어 1933년부터는 활자로 인쇄되었다. 당시 신앙 교양잡지로서는 이 『게자씨』가 최초였고 주로 신앙동지들에게 배부되었다.<sup>3)</sup> 방지일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모임이라는 의미로 김진홍, 윤병식 등과 더불어 종적회(從跡會)를 구성하고 각자 회비를 각출하여 『게자씨』 등사판 발행에 착수했다. 등사판은 김진홍의 철필 필체로 처음에는 20부, 30부 정도를 등사했지만 점차 늘어 200부까지 제작했고, 1933년부터는 활판인쇄로 발행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몇몇 인사만이 참여하는 영세한 개인 월간 수준이었으나 집필자를 늘려 남궁혁, 박형룡, 채필근 등의 교수진을 포함하여 김홍진, 김진홍, 김예진, 김석구, 박윤선, 박손혁, 방지일, 이유택, 윤병식 등 신앙동인들의 글이 실렸으며 김화식, 주기철, 방효정, 윤용팔, 마두원, 백응수, 강홍수, 강경준, 함일돈, 김인준, 방효원 등 교회 교역자들의 글도 게재되었다.<sup>4)</sup> 홍성사에서 발행한 『게자씨』 영인본은 1937년 6월호까지 총 6권으로 분류 정리되어 있지만, 실제 종간은 전시체제하의 일제가 모든 출판물 발간을 중단시킨 1939년 12월

3) 홍치모, “축사,” 5.

4) 방지일, “〈게자씨〉 영인본 발행에 부쳐,” 7-9.

이었다. 발행처는 평양 신양리(新陽里) 소재 게자씨社로 되어 있다.<sup>5)</sup>

1933-1934년 게재된 이 잡지의 이해를 위해서는 1930년대 초중반 교계의 어수선한 정황과의 접목이 필요하다. 이 시기는 다양한 신학에 접한 유학과 학자들이 차츰 늘어나는 때였고 신학적으로도 보수성향의 학자들과 진보성향을 띠는 학자들 사이에 혼란이 증폭되고 있었다. 종파운동<sup>6)</sup>, 김재준의 “이사야의 임마누엘 예언 연구”의 파장<sup>7)</sup>, 아빙돈 단권주석 발행<sup>8)</sup>, 캐나다연합교회 진보주의 성향의 선교사들 내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특히 장로교 진영에 갈등이 잦았음을 고려해야 한다. 1910년대 후반부터 한국교회는 보수진영일수록 복음전파와 구령사역을 명분으로 내세워 점차 사회현장에서 멀어져가는 행태를 보였고 1920년대 중반부터는 사회주의자들과 대립의 각을 세우면서 이러한 현상이 고조되었다.<sup>9)</sup> 사실 한국교회의 교회중심적 신앙관은 성장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교회와 신앙의 대립, 전도와 공적 책임의 대립 양상을 가져왔고 이미 한국교회 초기부터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sup>10)</sup> 1930년을 전후하여 기독교계 출판물에는 기독교가 솔선하여 사회에 참여해야 한다는 호소를 담은 책들이 연이어 발표되었고 대표적인 사례로서 라우센부쉬

- 
- 5)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410. 출판물 일람 참고.
  - 6) 대표적인 사례들로서 무교회주의(김교신), 복음교회(최태용), 조선기독교교회(변성욱), 적국신당단(신홍우) 등이 있다. cf.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408-27.
  - 7) 김재준은 이사야 7장 14절의 처녀를 젊은 여자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여 박형룡과 갈등 관계에 놓였다. 김재준, “이사야의 임마누엘 豫言 研究,” 『신학지남』 제16권 제1호(1934. 1), 32-38.
  - 8) 1935년 12월 감리교에서 회년 기념으로 발행했으며, 김인서는 이 주석에 대한 논평에서 신신학설(新神學說)을 정통화 하려는 이중신학(二重神學)이자 회색신학(灰色神學)이라고 비판했다. 김인서, “아빙돈 註釋問題,” 『信仰生活』 제4권 제10호(1935. 11), 8. 안수강, 『길선주 목사의 말세론 연구』(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222-23.
  - 9) cf. 이광수, “今日朝鮮耶蘇教會의 欠點,” 『青春』 제11호(1917), 82-83.
  - 10) 한국일, “복음전도와 교회의 공적 책임,” 『장신논단』 제35권(2009. 8), 150-52.

(Walter Rauschenbusch)의 『야소의 사회훈』<sup>11)</sup>을 들 수 있다.

방지일은 1932년 9월 1일에 발행된 『게자씨』에 자신의 독특한 체험기라 할 수 있는 좌각원(座脚院) 방문기를 실었다. 당시 좌각원은 평안남도 순천군에 건립되었던, 장애자들을 배려한 일터였다. 1933년 12월 13일자 『기독교신보』에는 좌각원의 원장 이인섭(李隣燮)이 순천군 우포교회 장로로 장립을 받은 기사가 게재되어 있다. 이 시설에 대한 관심과 사회구제 등의 실천이 어떻게 계속되었는가에 대한 대목도 살펴 볼 대목이다.

### III. 시대적 상황성: 일본의 종교정책

1933년부터 1934년 사이에 출판된 『게자씨』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윤리적 관점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정절에서 두드러진다. 이러한 윤리적 관점은 1930년대 중반 일본이 취한 내선일체(內鮮一體)와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의 강경책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면서 신사참배 강요가 본격화되기 직전이었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1930년대 중반부터 일제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신사참배 강요와 신학교 폐교, 창씨개명(創氏改名), 2차대전과 징용제 및 징병제 실시, 정신대(挺身隊) 강제모집, ‘日本基督教朝鮮教團’ 설립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하면서 세계대전을 앞둔 민중의 피해상이 심화되었다.<sup>12)</sup> 신사참배 강요와 관련된 시대적 정황은 미나미 지로(南次郎, 재임 1936-1942)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1936년경부터 본격화되었으며 조선총독부는 강경하게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정책적 모토로 내걸고 군국주의(軍國主義) 체제를 정비하며 중일전쟁을 대비했다.

11) 기독교의 사회참여를 촉구했고, 7장에서는 사회봉사에 대해 강조했다. W. Rauschenbusch, *Social Principles of Jesus*, 고영환 역, 『耶蘇의 社會訓』(경성: 조선야소교서회, 1930), 116-37.

12) 안수강, 『길선주 목사의 말세론 연구』(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70.

일본은 신사를 통해 천조대신(天照大神), 천황, 무사신, 영웅신, 전쟁 전물장병 등의 신위(神位)에 참배하게 했으며 2차 세계대전을 앞둔 1936년부터는 미나미 지로(南次郎, 1874-1955)가 기독교인이던 우가키 가쓰시게(宇垣一成, 1868-1956) 후임 총독으로 부임하여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정책의 일환으로 참배를 시행했다. 일제는 1924년 11월 강경에서 참배를 반대한 보통학교 교사와 학생들을 퇴학시킨 것을 기점으로 1925년 10월 15일 남산 조선신궁(朝鮮神宮) 준공, 1932년 평양 서기산 참례 강행, 1936년 평양 숭실전문학교 교장 맥쿤(G. S. McCune, 1872-1941)과 승의여고 교장 스누크(V. L. Snook, 1866-1960)를 강제 해직시켜 출국 조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sup>13)</sup>

일제는 국내 모든 교단에 신사참배는 관념상 종교가 아니라 문화와 전통에 관련된 문제라고 설득했고 이후 1939년 일본 중의원회에서는 정식으로 종교단체법을 통과시켜 신사참배를 국법으로 선포함으로써 신사참배를 정당화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일신(唯一神) 사상을 신관의 신조로 삼던 기독교계 역시 신사참배의 굴욕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1930년대 중반부터 신사참배가 강요된 이래 한국기독교의 양대 교단이었던 감리교에서는 1936년에, 장로교에서는 1938년에 신사참배 결의를 단행하여 사실상 한국교회 신자 대부분이 신사참배에 동참했다.

1937년 7월에는 중일전쟁을 계기로 매월 6일을 애국일로 정해 신사참배를 의무화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참배를 강요했으며, 각 교단에 신사의 봉사(奉祀)는 관념상 종교가 아니라고 홍보하면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로서 1939년 3월 24일 74회 중의원회에서 종교단체법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감리교는 1936년 6월 제3차 연회에서 참배를 결정했고 1938년 총리사 양주삼(1879-?)은 신사참배는 종교적 의미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애국적 행위

13) 안수강, “신사참배 회개론의 유형별 연구”, 『한국개혁신학』 42(2014), 46-47.

(patriotic gesture)라는 입장을 표명하며 감리교의 결속을 다졌다. 장로교는 1936년 선교실행위원회를 소집하여 기독교학교의 폐쇄를 선포하는 등 강경책을 폈으나 총독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1938년 9월 10일 제27회 총회에서 황국신민으로서 적성(赤誠)을 다하기로 기한다는 가결결의문을 선포했다.<sup>14)</sup>

이러한 시대적 컨텍스트에서 1930년대 중반 『게자씨』 집필진은 1930년대 초중반에 각별히 선지자적 안목으로 유일신 사상과 순교정신을 고취하는 글들을 자주 게재함으로써 한국 기독교인들의 영성 고취와 아울러 신앙의 정절을 고취하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당시에 발행된 『게자씨』의 글들을 깊이 섭렵해야 할 필요가 있다.

#### IV. 유일신 사상과 신앙의 정절(貞節) 고취

1933년부터 1934년 사이에 출판된 『게자씨』에는 신앙의 정절을 고양하기 위한 의도로 게재된 주목할 만한 글들이 있다. 이 시기에 게자씨에 출판된 글들 중에서 주기철의 “一死를 覺悟하라”, 정암의 “三大偶像”, 김진홍의 “背敎時代に 信者의 거를 길”(번역작), 주일공파로 게재된 “히스기야가 반역한 빅성을 인도함”, 그리고 교회사에서 순교자들의 행적을 기려 연재한 “殉敎者巡禮記” 등은 일제의 종교정책에 비추어 신앙의 정절이라는 윤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아야 할 주옥같은 글들이라고 사료된다. 당시 『게자씨』 집필진은 일제 문서검열의 화를 피하기 위해 신사참배를 직설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유일신 사상과 신앙의 정절을 고취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일제의 핍박에 대비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참배 강요의 조짐이 농후한 시대적 정황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글들을 게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14) 안수강, “신사참배 회개론의 유형별 연구”, 47-48.

## 1. 주기철의 “一死를 覺悟하라”

이 글은 『게자씨』 1933년 12월호에 맨 처음 글로 게재되어 있으며 당시 신사참배의 전조를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첫 번째 글로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 이후에는 방지일의 “信仰의 所有者 시므온”, 곽송(방지일의 필명)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유택의 “主여 生命을 주시옵소서” 등을 연이어 게재하여 한결같이 신앙심을 고무하고 격려하는 일관된 주제들을 담았다.

주기철은 신사참배에 항거하다 1940년 9월 평양형무소에 제4차 투옥되어 있던 중 1944년 4월에 순교했고,<sup>15)</sup> 이유택 역시 신사참배에 적극 투쟁했으며 한국동란 발발 전 월남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1949년 12월에 공산군에 의해 순교한 인물이다.<sup>16)</sup> 민경배가 주기철을 비롯한 순교자들을 기려 칭송했듯이 순교자를 낳을 수 있는 종교, 십자가의 종교, 대속의 종교 그것이 곧 기독교이다.<sup>17)</sup> 주기철의 “一死를 覺悟하라”는 설교에는 그가 표방한 전형적인 순교신학이라 할 수 있는 ‘일사각오’의 자세와 정신이 두드러진다. 글 마무리 단계에는 일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平壤神學校復興會時說教’라고 첨언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한 설교인 것으로 보인다.

### 1) 인과관계로서의 ‘죽음의 각오’ 와 ‘신앙의 진보’

주기철이 논하는 ‘신앙의 진보’는 ‘죽음의 각오’에서 비롯된다. 즉 신앙의 진보와 죽음의 각오 양자는 철저하게 인과관계를 형성한다. 그는 모범

15) 민경배, 『순교자 주기철 목사』(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247.

16) 기독교대백과사전편찬위원회, 『기독교대백과사전(12권)』(서울: 기독교문사, 1993), 1381. ‘이유택’ 항목.

17) 민경배, 『순교자 주기철 목사』, 254.

된 행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각오에서 포착했으며 이 신앙을 실천한 대면적 인물들로 사도 바울과 도마를 들었다.

모든 因苦과 逼迫을 헛치고 나아간 諸聖徒들 中에 一死의 覺悟를 가지지 않은 者 없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今番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자죽어도 조타고 하였다. 이 한 말로써그는 일즉이 一死의 覺悟를 가지고 가즌 困難과 逼迫과 돌로 마즌 것과 獄에 가치우는 것에 勝利者이었다. (중략) 主 예수님의 죽음의 覺悟는 모든 辛酸한 苦痛을 하시었다. (중략) 도마의 覺悟(요한복음 11:16절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본 연구자 주)와 갖흔 覺悟를 가지자!<sup>18)</sup>

나아가 이 신앙의 진보는 기독교인 개개인의 신앙적 진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조선교회 공동체의 진보와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즉 조선교회 전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조선교회의 진보와 발전 역시 이 일사각오의 신앙심에서 출발한다고 확신했다.

우리 信者는 十字架 軍兵들이다. 예수님의 教訓을 우리가 勘當하여야겠다.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느냐? (중략) 一死의 覺悟를 함에 朝鮮教會의 進歩와 發展이 必然的으로 잇을 것이다.<sup>19)</sup>

이렇듯 주기철은 일사각오의 신앙이 신자 개개인뿐 아니라 한국교회 공동체 전체가 지향해야 할 지고의 고백이자 결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러한 투철한 신앙심에 입각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

18) 주기철, “一死를 覺悟하라”, 『계자씨』 2/12(1933), 1-2.

19) 주기철, “一死를 覺悟하라”, 2.

한 신앙의 본질을 수호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는 평소 주기철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와 관련하여 심중에 품었던 신앙의 정절을 함축한 의미심장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2) '순교-사후의 생' 의 도식

주기철은 순교정신을 고취하면서 순교와 내생(來生)의 삶을 분리시키지 않고 한 지평에서 연계하여 생각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는 사후(死後)에야 생(生)이 있다는 명제를 전제하고 그 죽음의 의미를 순교의 관점에서 조망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처럼 인생 누구나 맞이하게 될 죽음의 의미조차도 단순한 운명적 최후로 보지 않았다. 그 죽음이 지향하는 바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과 복음을 위한 헌신, 구령사역, 교회의 부흥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죽음이 잇는 곧에 삶이 잇다는 것은 萬古不變의 人間法則이다. 果然哲則이다. 地上에서 格양가를 부르는 모든 民族은 其 先祖들의 흘닌 피 때문이오 그리스도 福音의 世界的 征服은 使徒 바울의 살과 뼈와 피의 結晶이다. 殉教者들의 피로야 教會建設의 天國의 生이 잇다. (중략) 우리도 예수 的 榮光을 爲하야 내가 마실 잔을 마시라. 이 民族의 굶주림과 餓버슨 것과 罪로 놀니운 德서 저들을 救援하여 내려면 이 教會의 更生을 爲하라면 씩어지는 麥一粒(한 알의 보리-본 연구자 주)이 되어라. 이 決心을 가지기 前에는 여러분이 이 教會의 復興과 發展과 生命運動을 말하지 마시오.<sup>20)</sup>

주기철은 이 설교 후반부에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는 '하늘의 상쾌'(爽快)를 맛보지 못하며 "天國은 天國의 榮光을 爲하야 죽은 者에게 其 秘密을 알게 한다"<sup>21)</sup>고 했으며 신자는 마땅히 '거룩한 殉死'<sup>22)</sup>의 삶을 살아야 한

20) 주기철, "一死를 覺悟하라", 2.

다고 강조했다.

이 설교는 그의 일사각오 신앙이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확연하게 보여 준다. 그는 죽음의 각오와 신앙의 진보의 관계성을 인과관계로 구형했고, ‘순교’와 ‘사후의 생’의 도식을 통해서는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죽음인지를 설교했다. 그는 이 설교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정절, 복음을 위한 헌신, 그리고 가치 있는 죽음을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신앙의 총체적 본질이 자 근간이라고 피력했다.

## 2. 정암의 “三大偶像”

정암의 “三大偶像”은 『계자씨』 1934년 2월호에 맨 처음 글로 게재되어 후속 글들이 보여주는 주제들을 선도했다. 이 글에 이어 곽송의 “하나님이 保證하시는 信仰”, 이유택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방지일의 “信仰의 所有者 룿”, 김진홍의 “背敎時代에 信者의 걸을 길” 등이 게재되어 있으며, 이전에 발행된 1933년 12월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글에는 직설적으로 신사참배에 대한 경계를 담은 문구들을 발견할 수는 없지만 암시적으로 우회적인 방법론을 적용하여 하나님 외의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다.

### 1) 하나님을 선택하여 섬기는 신자상

정암은 당대의 신자들이 극복해야 할 삶 속에서의 우상을 ‘自己偶像’, ‘環境偶像’, ‘律法偶像’의 세 분야로 나누어 전개했다. 그러나 이러한 우상들은 고대인들의 우상과 현대인들의 우상은 단지 그 형식이 다를 뿐이지

21) 주기철, “一死를 覺悟하라”, 3.

22) 주기철, “一死를 覺悟하라”, 4.

‘惡結果는 갖흔 것’이라고 단정하여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태양신, 월신(月神) 등 신을 잘못 선택하여 섬기는 오류가 얼마나 큰 폐단이며 최악의 행위인지를 전제함으로써 삼대우상에 대해 논했다.

古代人들의 偶像과 現代人들의 偶像은 서로 그 形式을 달니하나 惡結果는 갖흔 것이다. (중략) 어느 民族이든지 神을 몹시 섬기든 것이 特色이었다. 彼等 의게는 神을 섬기지 안을 걱정보다도 神을 잘못 擇하여 섬기는 것이 큰 罪惡이었다. 現代人은 그와 갖치 안이 한다. 吾人은 彼等の 것과 딴 形式의 偶像을 혼히 섬기나니 이는 곧 自己偶像 環境偶像 律法偶像이다.<sup>23)</sup>

정암이 이 글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일을 지목한 것은 일본의 전래 신앙적 관점에서 일면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태양신(아마테라스오미까미, 天照大神)<sup>24)</sup>을 시조신이자 건국신으로 섬기기 때문이다. 정암은 신사참배에 대한 언급은 일체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自己偶像’, ‘環境偶像’, ‘律法偶像’ 등으로 대별하여 우상에 대한 경계심을 대변해주었다. 이로써 어떤 형태의 우상이 되었던지 간에 일체 우상을 배척하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우회적으로 피력하고자 했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여주는 “古代人들의 偶像과 現代人들의 偶像은 서로 그 形式을 달니하나 惡結果는 갖흔 것이다”라는 표현이 이러한 암시를 담고 있다.

23) 정암, “三大偶像”, 『게자씨』 3/2(1934), 1.

24) 일본은 신화(神代) 천황가의 시조신으로 태양신인 아마테라스오미까미(天照大神)를 섬기며 이 태양신을 시조신으로 일컫는다. 한국일어일문학회, 『모노카타리에서 하이쿠까지』(서울: 글로세움, 2003), 311.

## 2) 극복해야 할 이상들

정암은 한국의 시대상에 비추어 당대의 신자들이 극복해야 할 이상들을 세 가지로 설명했다. 먼저는 ‘자기우상’이다. 교만한 마음에 치우쳐 자기 자신을 내세우면 결국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마저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환경’은 자신의 힘보다도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이 환경에 희생됨으로써 결국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종속되고 만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암은 주님의 뜻이라면 죽음을 무릅쓰고 정진할 때 도리어 환경을 지배하고 이용하는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역설한다. 나아가 ‘울범우상’에 대해서는 행위주의를 통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폐단을 일소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할 것을 촉구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과의 관계성을 부부시간으로 엮어 내어 ‘婦의 心靈’을 묘사한 대목에서 신자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일편단심(一片丹心)의 사랑과 정절을 느낄 수 있다.

世上의 第一 큰 원수는 나를 떠나 外界(하나님 의존-본 연구자 주)에 存在지 안코 곳 내 안에 잇는 「自己」이다. 이는 나로 하여곰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중략) 我等은 환경을 利用할 것이고 환경에 支配되지 말 것이다. 主님의 뜻이면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갈 것이다. (중략) 吾人은 그리스도와 夫婦된 關係를 안후 夫(그리스도-본 연구자 주)에 對한 婦(신자들-본 연구자 주)의 心靈을 가질 것이어늘 (중략) 行爲主義를 버리고 예수를 正面으로 바라보며 예수의게 信賴할지니 거기에서 모든 조흔 것을 엿게 된다. 나와 예수 사이에는 아모 것도 업다.<sup>25)</sup>

위의 인용문 마지막 문장에 구사된 “나와 예수 사이에는 아모 것도 업다”는 표현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장애물도 모두 제거하고

25) 정암, “三大偶像”, 1-2.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려는 ‘코람데오’(Coram Deo)의 신전의식(神前意識)을 고백한 내용이다. 이렇듯 정암은 우상들을 극복해야 이유를 일체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신자의 본분 상에서 찾았다. 그의 논리에는 신앙을 저해하는 모든 걸림돌이 척결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시하고 신뢰할 수 있다는 교훈이 깊이 내재되어 있다. 당시 일본의 신사참배 장려를 철저하게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를 추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구한 종교정책이었으며 한국기독교인들의 유일신 신앙에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다. 따라서 정암이 그리스도만을 섬겨야 한다는 명분으로 제기한 우상 혐과 주장은 비록 우회적으로 자신의 내심을 표현하긴 했어도 시기상으로 신사참배의 전조가 짙어진 때였다는 점에서 암시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 3. 김진홍의 “背敎時代に 信者의 거를 길”(번역작)

“背敎時代に 信者의 거를 길(걸을 길)”은 정암의 “三大偶像”과 함께 『게자씨』 1934년 2월호에 게재되었다. 이 글은 김진홍 자신의 저작이 아니며 제목 옆에 “케이트 엘 뿌룩스인 小冊中の 一部를 譯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비록 이 글이 김진홍 본인이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각별히 신앙적 관점에서 배도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선택하여 번역했다는 것은 다분히 역자의 의도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본 연구자의 소견으로는 다른 글들에 비해 논리적으로는 내용상으로는 그 강도면에 있어서나 신사참배에 저항할 만한 가장 원색적인 정신을 담은 글이라고 사료된다.

#### 1) 성도의 전투적 신앙

저자는 ‘성도에게 한 번만 주신 신앙’을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함으로써 ‘성도의 전투적 신앙’을 독려했다. 전투적 신앙은 물리적 싸움을 가리

키는 것이 아니라 '福音의 最上防備'에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한 최상의 방비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교훈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라고 했다.

聖徒에게 한 번만 주신 信仰을 爲하여 힘써 싸호라. (중략) 이 信仰은 聖徒들과 함께 預藏되었음으로 眞正한 그리스도人은 신앙의 貯藏室이다. (중략) 信仰을 爲한 싸움은 싸움 自體를 意味함이 안이고 싸움에 있어서 첫 階段과 福音의 最上防備는 그리스도의 教訓 안에서 生活하는 것이다. 過去에 벌써 신앙生活한 만흔 聖徒들과 갖치 신앙은 그것을 爲하여 싸호는 武器를 不要한다.<sup>26)</sup>

저자는 성도의 전투적 신앙은 복음의 방비에 있고, 위의 인용문 마지막 문장에서 밝혔듯이 복음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무기는 신앙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앙의 훈령(訓令)과 칙령(勅令)은 성령이요 성령께서 그 생명을 신성(神聖)하게 하신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투철하게 반영했다. 사실 일제치하 한국기독교 형편에서 보면 1930년대 중반은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이 점차 와해되어가는 위기의 전환점이기도 했다. 이후 몇 년 지나지 않아 1937년 중일전쟁, 1938년 국민정신 총동원령 선포를 거쳐 1941년에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서 일제는 1940년대 초중반에 종교정책을 빙자하여 만주소재 교단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만주조선기독교회를 설립했고, 조선혁신교단을 조직했으며, 한국의 전 교단을 하나로 통폐합하여 일본기독교조선교단을 조직했다. 더군다나 교회에 대해서는 재림론 부정, 구약성경과 요한계시록 사용 금지, 4복음서만의 교의 선포, 찬송가 가사 수정 및 삭제 등을 명하

26) 케이트 엘 뿌룩스/김진홍 역, “背教時代に 信者의 거를 길”, 『계사씨』 3/2(1934), 15-16.

여 기독교의 본질과 정체성을 무력화하기 위한 꾀박을 가했다.<sup>27)</sup> 이러한 시대적 정황을 고려하면 “背敎時代に 信者의 거를 길”에서 순수한 복음을 수호하기 위한 의도로 교훈한 성도의 전투적 신앙상은 선지자적인 안목을 담은 시의적절한 메시지였다고 높게 평가할 수 있다.

## 2) 신앙적 좌절과 하나님의 사랑

저자는 먼저 신자들 역시 인간이기에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지적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요(動搖), 영적인 퇴보, 의혹하는 마음 등 신자들이 흔히 현상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좌절들을 나열했다. 그러나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지켜야 할 책무가 있으며, 신앙을 자수(自守)할 수 있는 동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中에서 自守하라. (중략)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은 너머도 動搖하여 信賴할 수가 업고 또 자주 깊은 골짜기에 떨어지고 疑惑이 充滿케 한다. 故로 恩惠를 알기를 千만큼 하면 하나님의 사랑보다 우리의 사랑을 더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만큼 해야되겠다. (중략) 疑心은 너희의 生命을 暗黑의 世界에서 彷徨케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우며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인가? 幼兒들이 어머님에게 順從함갓치 우리도 順從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 우리 主님은 「아바지를 깃브시게 하는 것을 내가 恒常 하노라」 말씀하섯다.<sup>28)</sup>

위의 인용문 후반부에서 언급한 “幼兒들이 어머님에게 順從함갓치 우리도 順從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자”는 권면은 종교개혁자 칼빈(John Calvin)이 『기독교강요』 제4권 제1장에서 교회와 신자와의 관계성

27) 민경배, 『한국기독교회사』(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500-501, 505-506.

28) 케이트 엘 뿌룩스/김진홍 역, “背敎時代に 信者의 거를 길”, 17.

을 어머니와 영아로 기술한 대목과도 면밀하게 상통한다.<sup>29)</sup> 영아가 어머니를 떠나면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고 죽음에 처해지듯이 신자들은 교회의 품에서 복음으로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어머니로서의 교회’를 연상하게 해준다.

### 3) 그리스도의 재림 소망

이 글에서는 신앙적 좌절과 하나님의 사랑에 이어 연장선상에서 강론을 이어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자비를 의지할 것을 격려했다. 현세의 정국을 파선(破船)에 비유하며<sup>30)</sup> 궁극적 평화가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할 것을 교훈했다.

그리스도의 자비를 차출 것 (중략) 그리스도의 再臨 時에 알녀질 바 예수 慈悲의 最高峰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곧 우리 信者의 福된 所望이다. 過去와 現在만 보는 것은 疑心 업시 物質主義에 빠진 思想이고 (중략) 信仰의 發源地 요 水溜所인 예수를 바라보자. 앞에 잇는 絶壁을 보지 안코 걸러가면 떨어질 所望 밖에는 아모 것도 업스며 福된 所望과 主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찾으라.<sup>31)</sup>

1930년대 중반은 만주사변(滿洲事變)이 지나고 차츰 1937년 중일전쟁을 향해가는 시점이라 일제가 전쟁을 대비한 군국주의 체제로 정비해가던 시기이기도 했다. 전술한 것처럼 이 시기는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 ‘조선사상범예방구금령’, 신사참배 강요와 신학교 폐교, 창씨개명, 2차대

29)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sup>2</sup>, Translated by Ford L. Battles(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IV. 1. 1.

30) 케이트 엘 뿌룩스/김진홍 역, “背敎時代에 信者의 거를 길”, 18.

31) 케이트 엘 뿌룩스/김진홍 역, “背敎時代에 信者의 거를 길”, 17-18.

전 발발, 징용제 및 징병제 실시, 정신대 강제모집 등의 예조(豫兆)가 보이던 시기였고 국민들은 수탈로 인해 혹독한 고초를 당했다. 더군다나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말까지 오랫동안 지속된 세계경제대공황(Great Depression)<sup>32)</sup>으로 인해 한국기독교에 미친 영향도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기독교인들 역시 신앙적, 물질적 좌절을 절감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고 영적 좌절과 피폐를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진홍이 이 글을 선별하여 번역하고 『게자씨』에 게재한 것은 분명히 선각자적인 혜안(慧眼)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인식하여 예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글에서는 ‘전투적 신앙’,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재림’이 한 지평에서 논리적으로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저자는 파선과 같은 현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전투적 신앙을 전개할 것과 나아가 미래적 시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게 함으로써 성경적 역사관을 관철하려는 지혜를 보여주었다.

#### 4. “히스기야가 번역한 빅성을 인도함”

이 글은 『게자씨』 1934년 8월 9월 합본호 “主日工課參考”에 게재된 내용으로 특별히 우상숭배와 관련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교훈했다. 역대하 31장 1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삼아 히스기야가 우상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향해 질책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내용을 담았다.

32) ‘Depression of 1929’ 혹은 ‘Slump of 1929’로도 표기한다. 1929년 10월 24일 뉴욕 월스트리트(Wall Street)의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주가가 대폭락한 데서 발단되었으며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는 뉴딜정책(New Deal Policy)으로 난관을 극복하고자 했다. cf. 양동후, “世界 大恐慌의 原因, 經過, 恢復過程”, 『經濟論集』 37/4(1998), 845-850. 안수강, “한치진의 『基督敎人生觀』을 통해서 본 1930년대 한국 교회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46(2017), 266.

### 1) 이상숭배는 반역의 길

저자는 히스기야가 반역의 길을 걸었다고 비판했던 점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자가 살펴본 바로는, 저자는 거짓 신인 우상을 숭배하는 행태에 대해 ‘반역의 길’, ‘배반’ 등의 용어를 동원하여 직설적으로 비판함으로써 짙막한 명제적 표현으로서는 가장 강도 높은 수사적 기법을 적용했다고 생각된다.

웃물이 흐림에 아랫물이 흐리지 않을 수 없는 법이니 이제 유대 렬왕들이 거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신 우상을 섬기며 음행하는 가운데 처하였으매 자연이 일 백성들도 반역의 길을 걸어 형언할 수 으리만큼(없으리만큼-본 연구자 주) 타락한 자리에 처하매 암흑한 세대가 되어 여러 방면으로 일반 백성은 지도자를 잃고 방황하는 자리에 처하였을 때 현명하고 유덕한 남군 히스기야는 나타나 일대 개혁으로 종교상에 혁명적 부흥을 일으켜 자던 백성으로 하하여금 큰 경성을 갖게 하였다.<sup>33)</sup>

저자는 이상숭배와 관련하여 ‘하나님을 배반’, ‘음행’, ‘반역의 길’, ‘타락’, ‘암흑’ 등의 부정적 용어들을 동원하여 비판하고 히스기야가 취한 강경한 조치에 대해서는 ‘개혁’, ‘혁명적 부흥’, ‘큰 경성’ 등의 표현을 통해 칭송했다.

### 2) 하나님 신앙 회복과 용서

저자는 히스기야의 부흥운동 사적을 통해 그의 교육활동에 비중을 두고 공과(工課)를 작성했다. 다음 글에는 유일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과 오직 그만을 섬길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기

33) 히스기야가 반역한 빅성을 인도함, 「게자씨」 3/8-9(1934), 25.

술하고 동시에 자비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여 ‘신앙회복’과 ‘용서’가 양립된 구도를 설정했다.

사자들을 각 지방에 보내어 힘 있는 권면으로 속히 여호와께 도라오라 자비하신 여호와 진로(진노-본 연구자 주)를 도리켜 용서하시고 입이 다른 나라에 포로해간 백성까지 노힐 수 잇을 것을 말하며 간절히 권면하였다. (중략) 성탄에 드러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리라는 것이다. (중략) 비록 주홍같은 죄를 지었다고 하되 하나님을 찾는 자의게 널리 용서하시여 자비를 베푸시니 속히 도라오라 하는 말씀이었다.<sup>34)</sup>

저자는 공과 마지막 문장에서 “크도다 히스기아의 종교운동이여! 많은 백성을 主 앞으로 인도하였도다.”라고 감격적인 문구로 마무리했다. 시기상으로 보아 이때에도 이미 신사참배가 제한적이긴 해도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양상을 띠었고 불과 2년 후부터는 미나미 총독의 강경책이 집행되는 시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공과는 우상숭배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력한 필치를 구사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자가 생각하기에 미나미 총독이 부임한 1936년경이었다면 이 공과는 문서검열 과정에서 당연히 문제시 되었으리라 본다. 실제 일제는 소위 국체를 손상하는 사상적 불순을 강력하게 단속한다는 차원에서 1934년 10월 도서과의 검열강화책을 시행했고, 1936년 8월에는 불온문서 취체령을 통해 검열에 박차를 기하고 있었다.<sup>35)</sup>

## 5. “殉教者巡禮記” 연재

“殉教者巡禮記”는 1933년 12월호부터 1934년 4월호에 이르기까지 총 5

34) 히스기아가 반역한 빅성을 인도함”, 26.

35) 윤해동 외 4인, 『근대를 다시 읽는다』(서울: 역사비평사, 2006), 208.

회에 걸쳐 연재되었으며 첫 회는 김성태가 작성했고, 제2회부터 제5회까지는 김진홍이 맡아 게재했다. 같은 주제로 꾸준히 연재되었다는 것은 집필진이 특정한 의미와 목적의식을 갖고서 게재하는 일에 취지를 모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제1회에는 이그나티우스(Ignatius), 제2회에는 폴리갑(Polycarp)이 소개되었으며 무슨 사유인지는 모르지만 제3회와 4회 분량은 영인본에 이 내용만 누락되어 있다. 제5회에는 로마제국시대 배립사덕이라는 여성이 소개되었으나 5페이지 분량 중 3면이 소실되고 첫 면과 마지막 면만이 게재되어 있어 인물 배경과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배립사덕 등 세 사람의 순교자들이 순교한 내력에 대해 소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그나티우스: 主後 百七年에 드라야노의 自己의 偶像을 崇拜하라는 號令이 로마로 거쳐서 안디옥에까지 熾한 形勢로 달녀왔다. (중략) 白髮의 先生은 「主여 온 마음을 다. 밧쳐서 當身을 사랑하게 하며 또 使徒 바울의 結縛當함갓치 나도 잡혀가게 하시니 感謝의 눈물은 禁할 수 업습니다.<sup>36)</sup>

폴니갑: 當時에 가이사 偶像을 全國의으로 一致하게 百姓들은 崇拜하라고 號令을 나렸다. (중략) 그러나 폴니갑은 이 消息을 듣고도 泰然自약하여 確固不動한 精神으로 지내는 것을 본 親友들이 懇勸하여 城外로 잠간 隱身하게 하였다. (중략) 이날에 저로 하여금 貴하고 또 當身의 뜻에 合當한 祭物로서 거룩하신 當身의 靈前 마자주시기를!<sup>37)</sup>

배립사덕: 고로 이 社會에도 Bari새敎人은 또 反旗들을 높이 들고 「十字架에 못박으라」는 號令을 偶像崇拜의 祭司들로 하여금 나리우게 하였다. 그리하여 배립사덕은 惑世誣民하는 女人이니 國家의 安寧秩序를 紊亂케 하는 罪目으

36) 김성태, “殉敎者巡禮記(1)”, 『계자씨』 2/20(1933), 21-22.

37) 김진홍, “殉敎者巡禮記(2)”, 『계자씨』 3/1(1934), 23-24, 26.

로 死刑을 하여<sup>38)</sup>

김성태와 김진홍은 이그나티우스, 폴리갑, 배립사덕 등 순교자들은 모두 ‘우상숭배’를 거부했다는 점에 큰 비중을 두고 이들의 순교행적을 기술했다. 1930년대 중반에 순교자들 열전을 소개한 것은 일상 입체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이라는 차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렇지만 통상 매호 20여 면으로 편집된 비교적 적은 분량의 잡지에 5면 가량의 지면을 할애해가면서까지 우상숭배에 항거하다 순교한 인물들을 5회에 걸쳐 소개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담는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 미루어 점차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이를 관주도하에 조직적으로 활성화하려는 일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신자들을 깨우치려는 의도로 순교자들의 신앙을 연재했음이 분명하다.

폴 레만(Paul Lehmann)에 의하면, 기독교윤리는 코이노니아 윤리로서의 특징을 갖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리고 교회의 한 성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코이노니아로부터, 코이노니아 안에서 얻는다고 볼 수 있다.<sup>39)</sup> 일제 강점기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방지일을 비롯한 저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존속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잡지를 발행하였으며, 그 내용 또한 신앙의 정절을 고취해야 한다는 신앙적, 신학적 고백을 다양한 양식으로 표출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V. 나가는 말

전통적, 체계적 신학담론에서의 기독교 신관은 삼위일체론이다. 하나

38) 김진홍, “殉教者巡禮記(5)”, 『계자씨』 3/4(1934), 21.

39) 폴 레만 저, 심일섭 역, 『기독교 사회윤리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42 - 45.

님은 삼위일체적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의 주관자로서의 하나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님, 세상 속에서 활동하시는 성령에 의해 드러난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일체강점기 신학도들과 목회자들의 신관은 우상숭배의 위협 앞에서 유일신 사상을 강조한 성격이 강하다. 주기철이 강조한 ‘순교’와 ‘사후의 생’에 대한 설교, 정암의 3대우상(자기 우상, 환경 우상, 율법 우상)비판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지적, 김진홍의 전투적 재림 소망, 우상 숭배와 히스기야의 부흥운동에 관한 글은 일체 강점기 상황 속에서 은유적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위협을 안고 쓴 글들이 분명하다. 결국, 믿음의 대상이며 신앙행위, 실천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통해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거나 실천적 무신론에 빠지는 것을 비판, 예방하고 있는 유일신 사상과 신앙의 정절 고취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후일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다수 기독교학교들이 폐교 및 휴교를 맞게 되고, 상당수 외국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상황을 야기하는 저변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일체강점기를 보내면서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윤리적 주제의식은 무엇이었을까? 『게자씨』저자들은 현대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선과악의 문제, 행위와 행위자의 문제에 앞서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어떻게 지켜 나가며 신앙의 정절을 존속할 수 있을지 질문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순교정신을 강조했던 것이다. 신학생, 대학생, 목회자들이 협력한 일종의 집단지성에 의한 논의로 볼 수 있는 책자의 발행은 도덕, 진리, 사회, 책임 등 현대윤리학에서 논의되는 윤리 개념에 대한 직접논의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우상숭배가 강요되며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 가운데서 신앙적 정절을 유지하며 다양한 우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성서와 서양신학 문

현에서 소개하면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윤리적 책임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편한 출판 환경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활자화하고 보급한 것 자체가 담론형성이라는 의미 있는 문화적, 윤리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논문에서는 신앙의 정절이라는 주제로 부각시킬 수 있는 글들로 논의가 제한되었지만, 적절한 후속 논의를 통해 연구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신앙의 정절을 강조한 것은 신사참배 강요로부터 기독교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전략적 윤리 담론이었다.

## 참고문헌

〈게자씨에 실린 글〉

- 곽 송. “그리스도오심은” 『게자씨』 제2권 제12호 (1933년 12월), 7-11.
- 곽 송. “유다서공부” 『게자씨』 제2권 제12호 (1933년 12월), 16.
- 곽 송.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신앙” 『게자씨』 제3권 제2호 (1934년 2월), 2-3.
- 김성태. “기독교화는 어떻게?” 『게자씨』 제3권 제2호 (1934년 2월), 11-14.
- 김진홍. “배교시대에 신자의 길을 길” 『게자씨』 제3권 제2호 (1934년 2월), 15-17.
- 김진홍. “노상전도인” 『게자씨』 제3권 제7호 (1934년 7월), 13-14.
- 김진홍.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게자씨』 제3권 제8-9호 (1934년 8-9월), 11-14.
- 김진홍. “행실은 각인의 심상을 보이는 거울” 『게자씨』 제3권 제10호 (1934년 10월), 5-7.
- 마두원. “심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게자씨』 제3권 제8-9호 (1934년 8-9월), 13-14.
- 마두원. “심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게자씨』 제3권 제10호 (1934년 10월), 1.
- 박윤선. “빌립보인서연구” 『게자씨』 제2권 제12호 (1933년 12월), 15.
- 박윤선. “승우승” 『게자씨』 제3권 제6호 (1934년 6월), 1-2.
- 박윤선. “신앙학생” 『게자씨』 제3권 제7호 (1934년 7월), 1.
- 방 열. “도의 절제” 『게자씨』 제3권 제4호 (1934년 4월), 8-10.
- 방지일. “신앙의 소유자 시므온” 『게자씨』 제2권 제12호 (1933년 12월), 4-8.
- 방지일. “신앙의 소유자 야이로” 『게자씨』 제3권 제1호 (1934년 1월), 16-17.
- 방지일. “신앙의 소유자 룻” 『게자씨』 제3권 제2호 (1934년 2월), 8-10.
- 방지일. “신앙의 소유자 혈루병 여인” 『게자씨』 제3권 제3호 (1934년 3월), 5-7.
- 방지일. “활동의 시기” 『게자씨』 제3권 제4호 (1934년 4월), 1-2.
- 방지일. “처음신앙과 아벨” 『게자씨』 제3권 제6호 (1934년 6월), 12-14.
- 방지일. “확실한 구원은!” 『게자씨』 제3권 제7호 (1934년 7월), 6-8.
- 방지일. “한사람의 힘” 『게자씨』 제3권 제8-9호 (1934년 8-9월), 15-16.
- 방지일. “나는 안다(사랑하는 벗에게)” 제3권 제10호 (1934년 10월), 8.

- 방지일. “안지실 십자가 질 십자가” 제3권 제11호 (1934년 11월), 1.
- 백응수. “기독교 영화 운동은 개인 전도로” 『계자씨』 제3권 제5호 (1934년 5월), 8-10.
- 백응수. “기독교 영화 운동은 개인 전도로” 『계자씨』 제3권 제6호 (1934년 6월), 7-8
- 이유태. “주여 생명을 주시옵소서” 『계자씨』 제2권 제12호 (1933년 12월), 12.
- 이유태. “내 생활의 범위” 『계자씨』 제3권 제1호 (1934년 1월), 4-6.
- 이유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자씨』 제3권 제2호 (1934년 2월), 4-7.
- 이유태. “순복음의 신앙” 『계자씨』 제3권 제3호 (1934년 3월), 2-4.
- 이유태. “신앙의 위험성” 『계자씨』 제3권 제4호 (1934년 4월), 3-7.
- 이유태. “신앙의 위험성” 『계자씨』 제3권 제5호 (1934년 5월), 2-6.
- 이유태. “불을 던지러 왔노니” 『계자씨』 제3권 제6호 (1934년 6월), 3-5.
- 이유태. “사랑이 제일” 『계자씨』 제3권 제7호 (1934년 7월), 4-5.
- 이유태. “사랑이 제일” 『계자씨』 제3권 제8-9호 (1934년 8-9월), 5-7.
- 이유태. “얼매맺는 가지” 『계자씨』 제3권 제10호 (1934년 10월), 8-10.
- 윤운팔. “신자의 내적생활” 『계자씨』 제3권 제1호 (1934년 1월), 7-8.
- 정 암. “삼대우상” 『계자씨』 제3권 제2호 (1934년 2월), 1.
- 정 암. “예수를 따르는 생활” 『계자씨』 제3권 제6호 (1934년 6월), 6.
- 정 계. “한 생명의 가치” 『계자씨』 제3권 제5호 (1934년 5월), 1.
- 정 계. “주를 따르는 태도” 『계자씨』 제3권 제11호 (1934년 11월), 2-4.
- 주기철. “일사를 각오하라” 『계자씨』 제2권 제12호 (1933년 12월), 1-3.
- 주기철. “내가되어야 하겠다” 『계자씨』 제3권 제1호 (1934년 1월), 1-3.
- 천광실인. “혁명적 종교가 사보나로라” 『계자씨』 제3권 제7호 (1934년 7월), 9-12.
- 채필근. “예수의 사진” 『계자씨』 제3권 제6호 (1934년 6월), 9-11.
- 채필근. “신앙의 큰 뿌리” 『계자씨』 제3권 제10호 (1934년 10월), 2-4.
- 홍학의. “신앙생활의 사기” 『계자씨』 제3권 제1호 (1934년 1월), 14-15.

<기타 문헌>

- 김경애. “작가 김명순의 삶과 기독교 신앙” 『여성과 역사』 제17집(2012. 12), 159-193.

- 김권정. “신석구의 기독교 사회윤리사상 연구”『기독교사회윤리』제24집(2012. 겨울), 7-32.
- 김명배. “일제하 기독교 경제운동에 관한 공공신학적 성찰과 한국교회의 과제”『기독교사회윤리』 제23집(2012. 여름), 125-157.
- 김영일. “정약용의 윤이사상”『기독교사회윤리』 제7집 (2004. 여름), 9-67.
- 김인서. “아빙돈 註釋問題.”『信仰生活』 제4권 제10호(1935. 11), 7-10.
- 김재준. “이사아의 임마누엘 豫言 研究.”『신학지남』 제16권 제1호(1934. 1), 32-38.
- 민경배. 『教會와 民族』.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 \_\_\_\_\_. 『歷史와 信仰』.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998.
- \_\_\_\_\_.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2000.
- 박기호. 『한국교회 선교운동사』. 서울: 아시아선교연구소, 1999.
- 변창욱. “한경직 목사의 국내선교 사역평가-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을 아우르는 통전적 신학의 실천자.”『장신논단』 제38권(2010. 8), 381-406.
- 서신혜. “기독교 전래에 따른 일제 강점기 경제 인식의 특징과 나눔 인식”『기독교사회윤리』. 26집(2013. 8), 149-177.
- 안수강. 『길선주 목사의 말세론 연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오성현. “현대 한국 복음주의와 윤리운동 -한경직, 김용기, 장기려를 중심으로”『한국기독교신학논총』. 68권(2010), 287-314.
- 이광수. “今日朝鮮耶蘇教會의 欠點.”『青春』 제11호(1917), 76-83.
-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 이숙진. “기독교신여성과 혼인윤리: 박인덕을 중심으로”『기독교사회윤리』. 제29집(2014. 8), 345-375.
- 이장형. “한국기독교 초기 윤리학교과서 문헌해제 및 한국적 수용과정 연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12), 317-351.
- 이장형. “『신자생활의 척경』을 통해 본 일제강점기 기독교인들의 윤리인식”『기독교사회윤리』. 29집(2014. 8), 4
- 이장형. “『그리스도윤리표준』에 나타난 인간 본분과 실천윤리”『신학과 실천』. 제41호 (2014. 15-440.9), 263-288
- 이장형. “한치진을 통해 본 한국 기독교사상계의 기독교윤리 이해”(2012. 12) ”『기독교사회윤리』. 제24호 (2012. 12), 263-288

- 양현혜. “김교신과 조선의 상대적 중심성의 발견” 『한국교회사연구』 제7집(1998. 10), 269-300.
- 홍치모. “축사.” 방지일목사기념사업회 편. 『게자씨 영인본(1931-32)』. 서울: 홍성사, 2010, 5.
- 한국일. “복음전도와 교회의 공적 책임.” 『장신논단』 제35권(2009. 8), 139-178.
- Augustine. *The City of God*. Translated by G. G. Walsh S. J. New York: a division of double day & Company, Inc., 1958.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I)*. Ch. 1, 1:1-2.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Conn Harvie M. 『한국장로교신학사상』.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1997.
- De Dietrich, Suzanne. *God's Unfolding Purpose*, 신인현 역. 『성서로 본 성서』. 서울: 컨콜디아사, 1980.
- Luther, M. “On the Bondage of the Will.” *Luther and Erasmus on Free Will*. Translated by E. G. Rupp.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99-334.
- Lehmann, Paul L. , 심일섭 역, 『기독교 사회윤리원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 Miles, John and Sara. *Bible Ethics*. Brussels, Belgium: Internayional Correspondence Institute, 1984.
- Rauschenbusch, W. *Social Principles of Jesus*, 고영환 역. 『耶蘇의 社會訓』. 경성: 조선야소교회, 1930.
- Vos, Geerhardu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원광연 역. 『성경신학』. 고양: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14.

논문투고일: 2018년 3월 01일

심사개시일: 2018년 3월 13일

게재확정일: 2018년 4월 06일

---

• 국 문 초 록 •

---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에 출판된 『계자씨』 1933년-1934년 발행 분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기 한국기독교 윤리사상의 담론을 추적해 보며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모색하여 한국 기독교윤리학의 사상적 지평을 넓히고자 시도되었다.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윤리적 주제 의식은 무엇이었을까? 『계자씨』저자들은 현대 기독교윤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선과악의 문제, 행위와 행위자의 문제에 앞서서 기독교의 유일신 사상을 어떻게 지켜 나가며 신앙의 정절을 존속할 수 있을지 질문하며, 다양한 모습으로 순교정신을 강조했던 것이다. 신학생, 대학생, 목회자들이 협력한 일종의 집단지성에 의한 논의로 볼 수 있는 책자의 발행은 이상승배가 강요되며 인권이 유린되는 상황 가운데서 신앙적 정절을 유지하며 다양한 위상을 극복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성서와 서양신학 문헌에서 소개하면서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윤리적 책임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불편한 출판 환경 속에서 시대적 사명을 활자화하고 보급한 것 자체가 담론형성이라는 의미 있는 문화적, 윤리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주제어:** ‘계자씨’ 방지일, 김진홍, 일제 강점기, 소명, 선교

---